환경 뉴스

국내소식

4대강 살리기로 여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난 4월 27일, 7개 정부 기관장과 4대강 유역 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충분한 수량 확보와 함께 생태 및 수질 개선 전략, 지역발전 및 문화전략 등을 융합하기 위한 범정부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이번 대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인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국토부(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5월 말 완료를 목표로 마련 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중간보고로 '가뭄과 홍수대비, 하천의 다기능 개발, 지역발전 기여' 등의 5대 핵심과제를 추진 할 것을 밝혔으며, 특히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적인 추진방안으로서 환경평가 내실화를 다지고, 수질개선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한편 수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발전, 녹색성장, 국토디자인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위, 녹색위, 건축위 등에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번 보고대회를 계기로 범정부적 협업체계가 강화되어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성폐자원으로 원유 129,320배럴(282억) 대체

환경부가 전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음식쓰레기 및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에너지 자원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38개)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44,383천 m^3에 달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그 중 37,362천m^3를 자체 보일러 연료와 발전시설 가동 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가스에는 메탄(CH_4) 성분이 60%가량 함유되어 있으며, 메탄은 발열량이 높아(8,500Kcal/Nm^3) 매우 유용한 에너지 자원인 동시에 지구온난화 지수가 CO_2보다 21배 높은 온실가스이다.

지난해 보일러 연료와 발전시설 가동 등에 이용된 바이오가스(37,362천m^3)는 원유 129,320배럴에 상당하는 에너지로서 연간 282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로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폐자원 에너지 활용 정책을 본격 도입한 지난해에 바이오가스 이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버려지는 가스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환경부분에서 가시화된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는 조사결과라 하겠다.

환경부에서는 발생량의 69%가 해양투기 처리되는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기성폐기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와 매립가스를 도시가스, 자동차연료 등의 고부가가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해양투기하거나 소각, 매립되는 유기성폐자원, 즉 음식쓰레기 및 음폐수(5,971톤/일), 가축분뇨(7,100톤/일), 하수슬러지(6,220톤/일)를 에너지 자원화 할 경우 총 473만Gcal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로써 연간 원유 321만배럴(약 7,000억원) 상당을 대체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기성폐자원을 2013년까지 26%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2020년까지는 해양투기 처리하는 폐자원을 모두 에너지 자원화 할 계획으로 '폐자원 에너지 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로운 상품 마트에서 바로 STOP!

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위해상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적시에 걸러내는 시스템이 시범 가동된다. 지난 4월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 대한상의와 함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금번 시범사업은 환경부 등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코리안넷을 통하여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의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시, 위해상품의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또한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함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가 원천 차단되게 된다.

각 부처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판매차단 시스템 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가 관련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수입차보다 좋다, 국산차(car)!

작년에 출시된 국산차와 수입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분석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등급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 현대, GM대우 등 국내 제작사의 평균 배출가스 등급은 2등급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수입차의 경우 수입국별 평균 배출가스 등급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2.6 등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1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산차의 경우 평균 배출가스 등급은 2.6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사용 연료에 있어서는 경유 차량(2.50등급) 〉 휘발유 차량(2.73등급) 〉 LPG차량(2.75등급)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작사별 평균 배출가스 등급은 쌍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작사간 대상 차종 수의 편차가 크고 차종이 많지 않아 제작사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수입차의 경우, 평균 배출가스 등급은 3.07등급으로 국산차에 비해 등급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평균 배출가스 등급에 있어 미국(2.67등급) 〉 일본(3.11등급) 〉 유럽(3.22등급)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수입 국가별 차종 수의 편차가 심해 국가간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발표할 계획이며 등급발표 대상을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륜차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 탄소라벨링 제품 출시!

국내에서 최초로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 인증을 받은 11개 업체의 22개 제품들이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장에 출시되었다.

출시 제품은 LG 드럼세탁기, 코카콜라, 웅진코웨이 정수기, 경동 나비엔 보일러, 해태 감자칩 등 22개 제품이며, 「이마트」와 「홈플러스」등 대형 유통업체의 자사브랜드(PB) 상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에서는 국내 탄소성적표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약 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자금은 탄소성적표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 인증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탄소성적표지」 부착제품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년 중으로 「저탄소 상품 인증기준」을 마련, 내년부터는 「저탄소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탄소 상품이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후, 환경부가 제시하는 「최소감축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하여 「저탄소상품」인증을 거친 제품으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지구의 날 … 올여름 핫하게!

환경부는 지난 4월 22일 2009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색다른 환경보호 메시지를 내놓았다. '지구는 내 운명 : 2009 지구사랑을 위한 나의 작은 실천' 이라는 제목을 단 이번 실천 다짐은 재미와 참신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구호성 실천 선언문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번 실천 다짐들은 그동안 자주 들어왔던 환경보전에 대해 이야기 하는 대신 호기심을 유발하는 아이디어로 끝까지 읽히도록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냉난방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구호 대신 '여름엔 핫!하게 겨울엔 쿨~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산림과 동물을 보호하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계곡에 놀러가서 도랑치고 가재 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특히 실천다짐의 내용들은 지난 3.20일부터 3주간 개최된 '풀뿌리 지구사랑 실천선언 공모전' 에서 모아진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더욱 의미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천다짐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환경부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시 · 도 및 인터넷 포털 업체 등과 협력하여 더욱 많은 이들의 지구사랑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는 내 운명 : 2009 지구사랑을 위한 나의 작은 실천' 내용은 지구의 날 홈페이지(www.earthday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녹색 强軍, 기후변화 대응 최전방에 나선다

환경부(환경관리공단)와 국방부(육군본부)는 공동으로 사단급 부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육군 탄소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개발 · 적용한다고 지난 4월말 밝혔다. 군(軍)의 경우 연료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각종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 · 관리되고 있어, IT 기반의 '육군 탄소관리시스템' 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55사단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범 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해군과 공군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와 같이 '2006 IPCC 온실가스 통계산정 가이드라인' 을 활용할 계획이며, '군 탄소관리시스템' 도 상반기 중 개발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오는 7월 '육군 환경보전 교육행사' 에서 탄소관리모델 시범사례 뿐만 아니라 육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주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접목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장병들에 대한 환경보전 교육 등으로 사회 진출 후에도 친환경 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고품격 생태관광입니다.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 20선' 을 선정 · 발표하였다.

20선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이 어우러진 것으로, 유형별로 보면 습지생태계 7개, DMZ생태계 2개, 해안생태계 4개 및 숲 · 문화자원 7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와 문화해설사의 해설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산하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이번에 발표된 20선은 생태관광 포털싸이트(www.

eco-tou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연환경해설 및 체험일정에 대한 보다 궁금한 사항은 동 싸이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보다 의미있는 여행을 하고자 할 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향후 '생태관광 100선'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력,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4계절, 수요층(부부, 가족, 연인, 학생)등 테마별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가뭄으로 인한 팔당댐 수질 악화

환경부는 최근 계속되는 가뭄 등으로 인해 주요 상수원인 팔당댐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팔당댐의 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를 기준으로 올해 2월부터 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팔당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지역(남한강, 북한강)의 수질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팔당댐의 수질이 악화되는 수요 원인으로는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의 감소와 호소내 체류시간의 증가, 수온 상승에 따른 조류의 급증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남한강의 유입유량 감소와 수질 악화로 인해 하류에 위치한 팔당댐의 오염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2월 초기 강우로 인한 비점오염원의 유입도 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금년 2월부터 추진 중인 '갈수기 한강상수원 수질관리 비상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근본적인 4대강 갈수기 대책을 위해 중·장기적인 수질대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갈수기 영향으로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낙동강 수질은 강수량 증가와 조류 감소 등으로 인해 수질이 다소 개선되었고, 대청댐과 주암댐의 수질은 예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매년 3월에서 5월까지의 오염도가 가장 높게 형성되므로 당분간 오염도가 악화되거나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대한상공회의소, 제20대 회장에 손경식 회장 재선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25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손경식 現 회장(CJ(주) 회장)을 제 20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손경식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에 대한상의 회장으로 처음 선출된 이래, 19대에 이어 다시 20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며,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활동하게 된다. 손경식 회장은 "국가경제와 회원기업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힘든 경제상황 가운데 우리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고 기업인의 의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어려운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그 동안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해 오면서 정부와 기업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경제관련 법·제도를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키는 등 명실상부한 업계의 수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